

# 경북도, 'K-U시티' 본격화... 17개 시군에 291억 투입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등 추진 남은 5개 시군에도 컨설팅 예정 "청년 지방정주시대 실현 목표"

경북도는 청년 지방 정주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해까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한 17개 시군,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올해 'K-U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정하고 이들 17개 시군의 U시티를 구체화해 나가며 남은 5개 시군도 U시티 컨설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7개 시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83억 원), 연구지원센터 건립(60억 원), 정주환경 조성(140억 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7억 5000만 원) 등이 추진된다.



경북도청.

먼저 '지역산업기반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83억 원이 투입돼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략학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기업 협력 연구 및 사업화 등 혁신 기술개발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연구지원센터 조성'은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곳당 80억) 규모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이 이 사업을 벌인다.

'정주환경 조성'은 K-U시티 참여 기업 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해 세어하우스 및 청년 레지던스,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7개 시군에 2025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활성화'는 K-유머·K-팝·K-스토리 등 K-U시티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의 기업 근로자와 대학생까지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확신을 위해 항공MRO와 항공물류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의성 공항신도시와 연계해 항공 MRO와 항공물류 관련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캠퍼스와 명품 주거단지,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K-U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해 누리고 살 수 있는 청년 지방정주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고흥군 '우주항공 해설사' 양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차별화된 우주항공 전문 해설을 제공하는 '우주항공 해설사'를 양성한다.

우주항공 해설사는 우주항공 관련 시설이 집적된 고흥군에서 기획한 시책으로, 고흥 우주항공축제(2024.5.4.~6.)와 우주항공 여행상품 운영 시 어려운 우주 관련 이야기를 관광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 공간(직장 등)이 고흥인 60세 미만으로, 지역관광에 소양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건강에 제약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 안동시 '운전면허센터' 들어선다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안동시는 도로교통공단과 안동운전면허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경북 북부권 주민이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려면 왕복 2~4시간이 소요되는 문경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안동 운전면허센터는 안동과학대학교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 대구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대구광역시 전 국민 및 대구시 산하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2024년 제1회 정책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달빛철도와 연계한 대구시 발전 아이디어 ▲동성로 부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 ▲미래형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대구시 공무원 대상) 건전제정을 위한 대구시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 4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경남도 '스마트 물류 특성화 대학' 모집

경상남도는 스마트 항만 및 신공항 개장을 대비한 스마트 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스마트 물류 특성화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물류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 제시하는 우수대학 1개소를 선정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1년간 사업 시행 후 성과 평가를 진행, 추가 지원과 도내 특성화 대학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 광주시, 특색 갖춘 골목상권 육성 전략·공동마케팅 등 1.1억 지원

###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 대상 모집 중장기 활성화 전략·특화상품 개발

광주시가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활성화 전략 수립·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우수상권 집중육성 사업' 대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화기반을 갖춘 총 2개 상권을 선정해 최대 1억1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권별 중장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야기와 특화상품 개발,

디지털전환사업 상담, 공동마케팅, 지역형 축제(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상권의 정체성을 구축해 광주만의 특색을 갖춘 대표 상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선출된 상인 단체이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자치구를 통해 광주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상권 선정절차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입지의 적정성, 협업성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장성군, 지난해 출생아 수 35.2% 증가

진원·남면 개발사업에 기대감 ↑

장성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직전 해보다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장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보다 45명 늘어난 173명이다. 군 단위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변화다.

향후 인구 전망은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접점 지역인 진원·남면 일원에서 진행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381세대 대단위 주거 단지가 조성돼 9500명 가량 인구가 유입이 예상된다. '읍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할 정도의 규모다.

일자리도 늘어난다. 2029년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완공되면 1만2500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



김한중 장성군수가 이도윤 군을 안고 있다. 이도윤 군은 올해 장성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셋째이다.

/장성군

로 보인다.

4900억 원 규모 '장성 데이터센터'도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된다.

중장기 사업과 함께 장성군이 추진 중인 청년 지원사업도 이목을 끈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 진주시, 중동서 600만弗 수출상담 성과

###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진주시는 지난 19~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Gulfood 2024, 이하 걸푸드)'에 참가해 진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바이어 만남을 통해 600만 달러 수출 상담과 60만 달러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참가한 걸푸드에서 진주 배와 딸기의 가능성을 확인한 진주시는 이번에는 배와 딸기 외에도 키위, 애호박, 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홍보했다.

또 중동 지역에서 K-푸드의 건강 기능성 식품 인기에 맞춰 배즈스, 도라지 캔디, 동결 건조차 등 농산물 가공품도 선보였다. 그리고 진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주드림' (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9일~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진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농산물 꾸러미도 함께 전시해 브랜드도 함께 알리는 성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주시, 파격 인센티브로 관광객 유치 총력

2.5억 투입... 관광 빅세일 등 선행

경주시가 올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는다.

시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관광 빅세일과 단체관광 인센티브 2가지 이벤트를 선보인다. 관광 빅세일은 유료 입장권 인증 이벤트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유료 입장권 인증 이벤트는 경주시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화랑마을, 토함산자연휴양림 등 3곳의 숙박시설과 동궁원, 양동마을, 동궁과월지, 금관총 등의 관광지 11곳, 총 14곳이 대상이다.

숙박시설 1곳과 관광지 2곳 이상 방

문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관광지 4곳 이상 방문 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각각 동궁과월지 대표소에서 입장권 확인 후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14곳 중 1곳 이상 방문한 입장객이 SNS에 해시태그를 포함한 방문 후기 업로드를 할 경우 동궁과월지,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 오름, 포석정, 천마총,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대표소에서 기념품도 지급한다.

수확여행단 및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단체관광 인센티브도 운영한다.

국내외 10인 이상 경주 방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1인당 1만원~1만 5000원, 20명 이상이면 1만5000원~2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